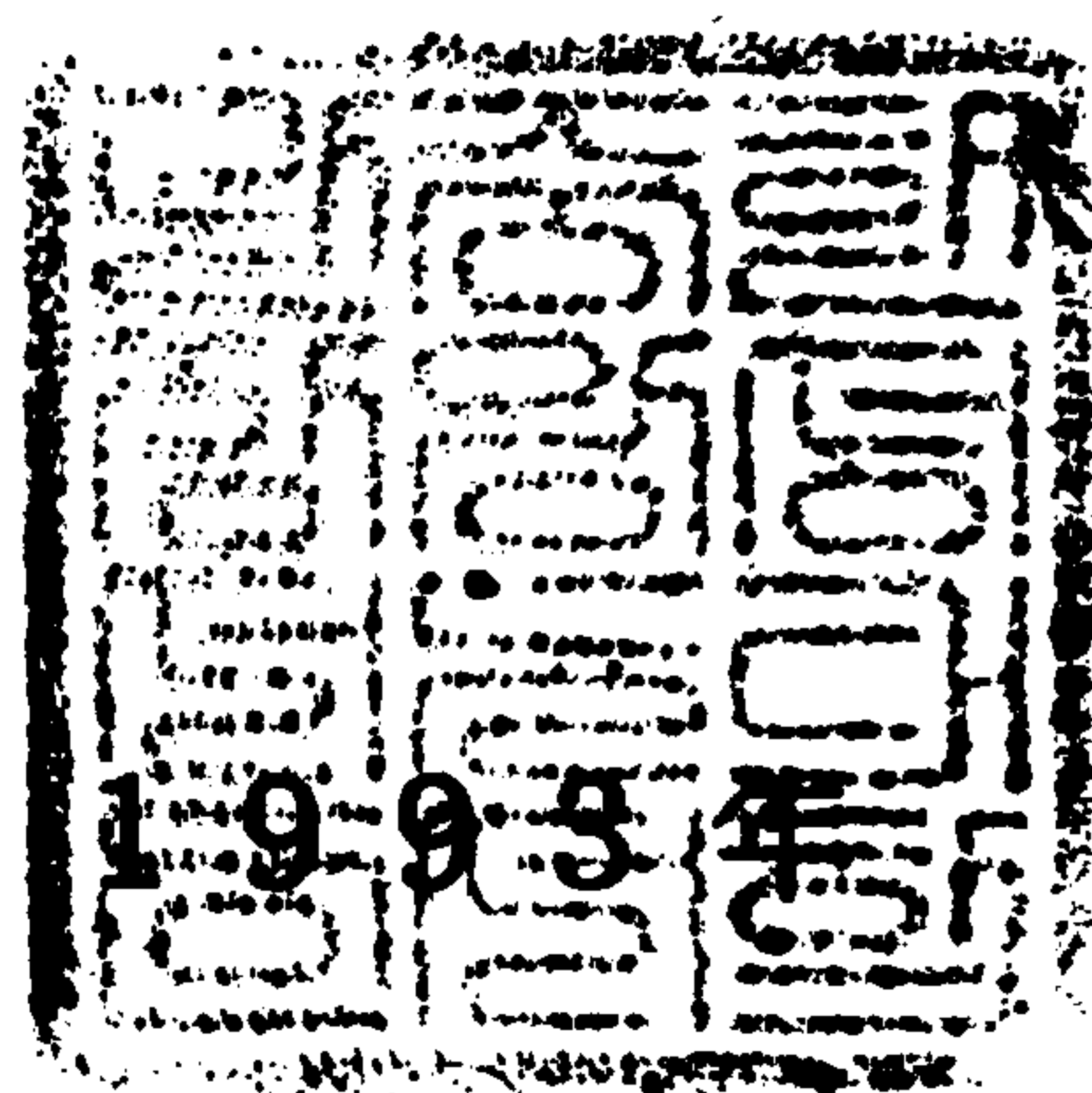


碩士學位論文

韓國 教會教育的 變遷과 運營 改善에
관한 研究



漢城大學校 行政大學院

教育行政學科

教育行政專攻

申 貴 澈

碩士學位論文
指導教授 曹 点 煥

韓國 教會教育的 變遷과 運營 改善에
관한 研究

A Study on the Concerning the Changes and the Operation
Improvements for the Church Education of Korea

1994 年 2 月 日

漢城大學校 行政大學院

教育行政學科

教育行政專攻

申 貴 澈

碩士學位論文
指導教授 曹 点 煥

韓國 教會教育的 變遷과 運營 改善에
관한 研究

A Study on the Concerning the Changes and the Operation
Improvements for the Church Education of Korea

위 論文을 教育學 碩士學位 論文으로 提出함.

1993年 11 月 日

漢城大學校 行政大學院

教育行政學科

教育行政專攻

申 貴 澈

申貴澈의 教育學 碩士學位 論文을 認准함

1993年 12 月 日

審査 委員長

印

審査 委員

印

審査 委員

印

“하나님 恩惠에 感謝드리며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고 不足한 자식을 위해 모든 것을 아끼지 않으셨던
부모님께 感謝드리며 이 論文을 드립니다.”

目 次

I. 緒 論	1
1. 문제의 제기	1
2. 연구의 목적	2
3. 연구의 내용 및 방법	2
1) 연구의 내용	3
2) 연구의 방법	3
II. 西洋 教會教育의 歷史的 變遷	4
1. 성서상의 교회교육	4
1) 구약에서의 교회교육	4
2) 신약에서의 교회교육	6
2. 교회교육의 변천	8
1) 초대 교회교육	9
2) 중세기 교회교육	12
3) 종교개혁기 교회교육	14
4) 근대 교회교육	16
III. 韓國 教會教育의 變遷	20

1. 한국 초대교회의 교회교육	20
2. 일제시대의 교회교육	23
3. 재건기의 교회교육	24
4. 부흥기의 교회교육	26
5. 안정기의 교회교육	27
IV. 韓國 教會教育의 實想과 運營改善 方向	29
1. 한국 교회교육의 실상	29
1) 교회교육 대상과 영역	29
(1) 아동부	29
(2) 중·고등부	31
(3) 대학·청년부	33
(4) 장·노년부	33
2) 교회교육 실상	34
(1) 교육목표	34
(2) 교육내용	35
(3) 교육방법	37
(4) 교사와 교회교육행정	37
2. 한국 교회교육을 위한 운영 개선 방향	40
1) 교회교육의 구조	40
2) 교회교육 계획	41
3) 교단분열에서의 통합	42
4) 교 육	43

5) 사회교육과 평생교육	44
6) 교사교육	45
V. 要約·結論 및 提言	48
1. 요약	48
2. 결론	49
3. 제언	50
參考文獻	52
ABSTRACT	56

I. 緒 論

1. 문제의 제기

현대 산업 사회가 과학과 물질위주의 사회로 변모해 가는 가운데 인간의 관심 또한 기술이나 경제에만 집중되고 향락주의적인 경향까지 보이고 있다. 이러한 현대 산업 사회의 흐름을 볼 때 교회교육은 사회교육적 차원에서 더욱 중요하다고 하겠다.

“우리는 세계와 그 안에 사는 우리 자신들에 대해서 배워야 하며, 오늘날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들을 탐지해야만 한다.1)” 는 램세이(W.M.Ramasay)의 말은 오늘날 교회교육의 중요성을 잘 지적해 준 말이다.

한국에 기독교가 들어온 지 벌써 100년이 넘었다. 그간 한국 교회는 팔복 할만한 양적인 성장을 이룩하여 왔다. 그러나 개신교회 교인들의 의식 구조와 신앙 생활은 개인주의적이고 형식주의적이며 안일과 타성에 젖어 있는 경향을 보여올 뿐만 아니라 교회의 대형화와 개인의 교회주의적 경향 두드러졌다.2) 이 점에서 한국 교회는 아직도 교회 본연의 역할과 기능을 다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한국 교회가 양적 성장에서 더 나아가 질적인 발전을 도모한다고 할 때에 특히 교회교육의 중요성은 크게 강조된다. 왜냐하면 교회교육은 바로 사회교육 기능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교회교육의 궁극적인 목적은 사회교육과 평생교육적인 기능을 다하는데

1) William M. Ramasay, *Cycles and Renewal: Trends in Protestant Lay Education*(New York: Abingdon Press, 1969), p.129.

2) 김종열, 「귀족교회」(서울: 대한기독교교육협의회, 1985), pp.273-282.

있다. 단순히 신앙만을 갖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들이 사회에 잘 적응하고 가치적인 삶을 추구하게 하는 것이 교회교육이라 할 수 있다.³⁾ 그러나 지금의 교회교육은 그러한 사회교육적 기능을 다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바로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의 필요성이 요청되어 본 연구자는 “韓國 教會教育의 變遷 過程과 運營 改善에 대한 研究”라는 주제를 설정하였다.

2. 연구의 목적

韓國 教會는 그동안 질적·양적으로 큰성장을 해 왔지만 교회의 양·적 성장간에는 큰 불균형을 이루고 있다. 특히 教會의 질적 성장을 위해서는 教會教育의 과감한 改善策이 요청된다. 이에 대한 研究 目的은 다음과 같다.

첫째, 聖書상의 舊·新約時代에 있어서 教會教育은 어떻게 이루어져 왔는가?

둘째, 初代·中世期·宗教改革期·近代 教會教育 당시의 실제 상황은 어떠한가?

셋째, 韓國 教會教育의 변천과정을 파악하고 그 實態를 규명한다.

넷째, 韓國 教會教育의 方向과 運營 改善方案을 모색한다.

3. 연구의 내용 및 방법

3) 김득룡, 「기독교 교육원리」, (서울:총회교육부, 1986), p.72.

1) 연구의 내용

첫째, 基督教 教育史를 통하여 舊約·新約時代에 걸친 初代·中世期·宗教改革期·近代 教會教育의 變遷 過程을 정리하였다.

둘째, 韓國 教會教育의 變遷過程과 教會教育의 실태를 규명하였다.

셋째, 질적인 教會教育을 위해서 바람직하고 합리적인 運營 改善方案을 摸索하였다.

2) 연구의 방법

첫째, 본 연구의 방법은 文獻研究로써 관련문헌, 학술서적, 선행연구논문 등의 자료를 分析하고 그 내용을 정리하였다.

둘째, 연구자의 다년간 牧會經驗을 토대로 議題에 합당한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였다.

II. 西洋 教會教育의 歷史的 變遷

1. 성서상의 교회교육

1) 구약에서의 교회교육

교회교육은 성서적 근거 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말씀 가운데 성장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교회교육은 성서적 내용에 기초해서 이루어져야 하고, 성서적 근거 위에서 계획되어지고 수립되어야만 한다. 또한 성서에서 근거를 찾아야지 다른 곳에서는 찾을 수가 없다고 하는 사실이다.

인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의 말씀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⁵⁾ 는 것이다.

친히 교사이시고 창조자이신 하나님의 가르침은 온 인류의 수많은 백성들이 구원받고, 말씀 가운데 성장하며 배우고, 교회안에 속하기를 원하시는 것이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⁶⁾ 함으로써 하나님은 지식과

창조의 근원이심을 밝히셨으며,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

4)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2:4.

5) 신약성경, 요한복음 3:16.

6) 구약성경, 창세기 1:1.

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바다와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심으로써”⁷⁾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교육의 대상으로 삼고 하나님 자신과 인간과의 관계에서 하나님 자신이 친히 가르치시는 교사가 되신 것이다.

신명기에서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만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⁸⁾ 하나님은 히브리민족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고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나 길을 행할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⁹⁾ 이와 같이 하나님은 가르치시고 명령하셨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교육의 책임을 부여하였다. 교육의 방법은 종교의식에 의한 것이었다.

유대인들이 포로 이후에 會堂에 모여서 율법을 읽고 듣고 배우는 일이 유대인들에게 전통이 되었고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레위사람 제사장앞에 보관한 이 율법서를 등사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그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행위를 지켜 행하라”,¹⁰⁾ 특히 포로前시대에 와서는 정치적인 지도자들이 율법을 읽는 운동을 전개했으며, 왕들은 백성들이 율법을 읽을 수 있도록 율법을 읽는 운동을 전개하였고 그 뒷받침을 해왔다.

이스라엘인의 바벨론 포로이후에 있어서는 이방인의 압박속에서 살아야 했던 히브리인들에게 무엇보다도 중요했던 것은 포로 생활 그 자체가 곧

7) 구약성경, 창세기 1:27,28.

8) 구약성경, 신명기 6:4,5.

9) 구약성경, 신명기 6:5,6,7.

10) 구약성경, 신명기 17:18,19.

종교적 신앙이었고 정치적 탄압이 끝 교회교육을 낳고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게 하였으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인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다.”¹¹⁾ 에스라는 포로 생활중에 아주 열성을 가지고 히브리민족들을 위해 가르치는 활약을 하였다.

2) 신약에서의 교회교육

신약성서에서는 교회교육의 실행이 가시화되었고 교회교육이 활발하게 전개 될 수 있는 제반 여건이 조성되었다. 이러한 사실은 복음서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서신서,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잘 나타나 있다. 그러므로 이는 초대교회의 일반적인 용법으로서 특징적인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여기에서 가르침은 대부분 윤리적 권고이다. 때로는 흔히 변증법적이라고 하는 것, 즉 기독교에 관심은 있으나 확신하고 돌아오지 않은 사람들에게 기독교를 논리적으로 소개하는 것을 포함한다. 특히 요한의 글에서는 신학적 교의에 관한 강해를 포함한 데 반해 선포는 이방세계에 기독교를 공적으로 선포하였다.¹²⁾

C.H.Dood 교수는 신약성서에서 선포와 가르침을 뚜렷이 구별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현재 한국 교회교육이 선포와 가르침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다드교수의 신약성서의 해석에 기초하여 교회교육이 실시되고 있는 셈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11) 구약성경, 에스라 7:10.

12) C.H.Dood, The Apostolic Preaching and It's Developments(London: Hodder and Stoughton Ltd, 1944), p7.

하라 불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¹³⁾라는 주님의 이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명령하고 있는 직접적으로 가르침과 선포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데에 있어서 교회교육의 근거를 제시한 점이라 할 수 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왔느니라”¹⁴⁾ 예수 그리스도는 정치적인 상황과 종교적인 상황하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다.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실 뿐만 아니라 몸소 제자들의 생활현장 그곳의 한복판에서 대화하셨고, 부르셨으며, 또 가르쳤던 것이다. 즉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생활 전반적인 것에서 가르침의 사건을 만드셨으며, 이러한 비공식적인 교육현장에서 주로 비유를 교육방법으로 택하셨고 청취자의 성격에 따라 달리 하셨다.¹⁵⁾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고 가르쳤다. “그 흠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 새”¹⁶⁾ 또한 사도행전 5장에서는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¹⁷⁾ 그들은 그리스도의 구속에 관해서 가르치고 열심히 전한 것이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유하며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담대히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께 관한 것을 가르치되 금하는 사람이 없었다.”¹⁸⁾한다. 사도바울은 로마 감금 중에 있으면서도 자기 셋집에 유하기를 허락받아 자기에게 오는 사람들을 영접하고 용기있고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께 관한 것을 가르쳤던 것이다. 제자들은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초대교회를

13) 신약성경, 마태복음 28:19, 20.

14) 신약성경, 마태복음 4:17.

15) 오인택의 4인, 「기독교교육」, (서울:대한기독교교육협회, 1984), pp. 128-129.

16) 신약성경, 사도행전 8:4.

17) 신약성경, 사도행전 5:42.

18) 신약성경, 사도행전 28:30, 31.

형성시켰다. 초대교회의 초기 기본적 성격은 선포하는 교회였지 가르치는 교회는 아니었다. 즉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선포하는 교회였지 결코 이 땅에서의 기독교적 생활양식을 가르치는 교회가 아니었던 것이다.

그러나 시대가 변천하고 세월이 좀 지나게 되자 교회의 모습은 근본적인 변화를 보이기 시작하였다. 이것은 임박했다고 믿었던 주님의 재림이 늦어져서 종말론의 재검토가 불가피해진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들이다. 이에 따라 교회는 교리적으로 정형화되고 윤리적으로 다듬어진 체계를 가르치고 그것으로 신자들을 형성하고 훈련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도록 이끄는 일을 중요한 목적으로 삼게 되었고,¹⁹⁾ 이방인 개종자들과 그리스도인 2세들에게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알도록 해야 한다는 교육적 책임으로 기독교의 진리를 가르쳤다.

초대교회의 이같은 교육은 敎會敎育의 場을 형성했고, 또 하나의 교회교육의 장은 에베소서에서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계명이니 이는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 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²⁰⁾ 신약성서 후기시대부터 신자들의 가정은 교육하는 공동체로서 그 특수한 위치를 점유하기 시작했기에 초대교회는 후기시대로 접어들면서 가르치는 교회, 즉 교육중심 교회의 성격을 가지게 되었다.

2. 교회교육의 변천

19) 오인탁 외, 『전계서』. pp. 129-130.

20) 신약성경, 에베소서 6:1-4.

1) 초대 교회교육

교회교육은 긴 세월이 걸쳐서 이루어져 왔다. 많은 시련과 역경속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은 끝까지 신앙을 지켰고 교회교육을 실시해 왔던 것이다.

초대교회의 교회교육은 종말론적인 성격이 강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토대 위에서 출발을 했는데, 처음부터 가르치는 교회가 아니라 선포하는 교회였다. 후기에 와서야 가르치는 교회의 성격을 가지게²¹⁾ 되었으며, 이러한 점에서 초대교회의 교회교육을 살펴 보려고 한다.

이때의 敎育目的은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선포하는 종말론적인 성격이 지배적이었던 것이 초대교회 초기의 모습이었다.²²⁾ 그러나 예수님의 제림이 임박한 것으로 기대하고 믿었던 것이 주님의 제림이 늦어지자 종말론의 개념도가 불가피해 졌고, 결국 초대교회는 교리적으로 새롭게 정형화되고 성도들을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도록 훈련하는 작업이 필요했다.

차츰 교회가 성장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화해와 용서의 복음이 이방세계로 전파되고 수많은 이방인들이 기독교로 개종해 오면서 이방인 개종자들에게 기독교의 진리를 가르치고 도덕적인 재훈련까지 해야만 했다. 이들 뿐만 아니라 교회안 성도들의 자녀인 2세, 3세대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의 사건을 직접 목격하고 체험하지 못한 새로운 세대들에게 그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삶과 복음을 확실하게 증거하고 교육하는 것이 큰 문제가 되었고 중요했다.

기독교의 불길은 점차로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번져 나아감에 따라 그리스와 로마 문화의 도전을 받게 되었다. 로마 정부는 국가 반란을 피하거나

21) 오인탁 외, 「전계서」. p.131.

22) 정용섭, 「기독교교육개설」, (서울:KCCE, 1976). pp.24-25.

도덕적 타락을 조장하지 않는 한 모든 사교를 다 인정해 주었는데 국가에서 공식적으로 주도하던 황제 숭배와 함께 각종 신비종교들이 직업적인 제사장들의 지도아래 번성하고 있었다.²³⁾ 이러한 사회와 문화 정치적인 환경 속에서 맞서서 대처해 나가야 하는 교육적 과제를 초대교회는 안고 있었던 것이다.

초대교회의 교육목적은 간추려서 살펴 본다면 첫째는 예배와 교육이 함께 살아있는 신앙으로 활동하고, 형성하는 신앙공동체를 유지하는 것이었다. 그 이유는 신앙공동체 안에서 자연스럽게 신앙이 이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이 형성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둘째는 거짓교리로부터 보호받고 사도적 교회로 회중이 양육되고, 기독교 진리의 보전속에 복음의 전달과 함께 윤리적으로 질서있게 다듬어진 도덕적인 재훈련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때에 초대교회의 교육내용은 초기부터 후기까지 설교, 이교문화에 대한 도전, 교훈 등이었다고 할 수 있는데 설교의 중심적인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장사지낸 바 되었으며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승천하셨다는 것이며, 또한 초대교회가 말기에 이르러서는 그 교육의 주요 과제가 그리이스와 로마 문화에 대한 정면 도전으로 나타났다. 그 일례가 유아세례의 문제로서 당시 교부 터툴리안 등의 심한 비판을 받으면서도 유아세례가 널리 일반화된 것은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이교문화에 대한 하나의 도전이었고,²⁴⁾ 교훈(didache)으로는 구약성경이 해석되었고 복음의 내용이 설명되었으며 기독교 교리는 신조의 형태로 연구되었다. 예수님의 말씀과 두 가지 길, 즉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이 교훈의 자료였던 것이다.²⁵⁾

23) Henry Chadwick, *The Early Church*, 서영일 역, 「초대교회사」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83), pp. 29-30.

24) 오인탁 외, 「전계서」, p. 131.

25) 김영규, *基督教 教育學*,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84), p. 58.

또한 루이스 셰릴은 사도들이 활동하던 시대의 교육 내용을 다섯가지로 정리하여 설명하고 있다. 첫째는 그리스도인들의 구약성서에 대한 해석, 둘째는 복음의 가르침, 셋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교훈, 넷째는 그리스도인들의 신앙고백, 다섯째는 그리스도인의 생활방식이었다.²⁶⁾

초대교회는 무엇보다도 로마 文化의 배경과 여러가지 압박속에서도 은밀히 교육이 이루어졌다.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예수님의 삶에 합당한 즉 예수 그리스도 삶의 스타일을 정립하기 위하여 교훈과 설교, 그리고 구약성서에 대한 해석과 재교육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고난의 삶에 대한 福音의 내용, 그리고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과 함께 하는 삶의 신앙고백 즉 교리와 신앙 생활훈련의 내용이 초대교회의 교육내용이었다.

초대교회의 敎育方法에 있어서는 주로 카테키시스(Catechesis)와 예배 등이었는데, 초대교회가 후기에는 가르치는 교회로 변모하면서 해석과 口傳의 問答敎育인 카테키시스로 자리를 만들어 갔다. 카테키시스란 말은 일반적으로 입문교육, 교리문답교육 등으로 번역되는데 구전을 통해서 입문적 기초지식을 문답식으로 전달하는 행위를²⁷⁾ 말한다.

예배를 통한 교육은 두 가지 부분으로 나뉘어졌는데 학습예배와 신도예배이다. 학습예배(Messa Catechumenorum)는 학습교인을 포함한 예배로서, 설교를 듣게 하고 성경을 가르치며 기독교의 기본 진리를 가르쳤다. 이러한 모임은 유대인의 예배를 본받은 것으로써 교인이 되기를 원하는 이들을 가르치며 훈련하는 것을 주로 한 예배였다.

그리고 신도예배(Messa Fidelium)에서는 학습교인들은 돌아가고 세례받는 신도들만 남아서 성례를 중심한 예배를 드렸다, 이 예배는 성찬을 배플

26) Lewis J. Sherrill, The Rise of Christian Education(New York:McMillan, 1944), pp. 44-53.

27) 오인탁 외, 「전계서」, p. 131.

고 신도들만 엄숙하게 예배하는 것이다.²⁸⁾ 이렇게 복음의 선포와 함께 가르침이 중요하게 여겨졌던 교육적인 행위가 바로 예배였다. 그래서 예배자가 하나님의 임재를 인식할 수 있게 하며 그리스도의 중심적인 모임의 중요성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였던 것이다.²⁹⁾

2) 중세기 교회교육

초대교회 시대에는 교회 사명에 충실했고, 복음적 신앙과 신앙전달 교육에 열심이였다.³⁰⁾ A.D. 313년 콘스탄틴(Constatine)황제에 의해 기독교가 로마제국의 인정을 받았고, 이후 A.D. 381년에 테오도시우스(Theodosius)황제는 기독교를 로마제국의 국교로 삼게 되었다.³¹⁾

한편 기독교인이 박해에서 벗어나자, 교회는 영적생활을 잇고서 세속화되어 결국 교회교육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이로써 교회는 새 교인을 얻기 위해서 더 이상의 노력을 경주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 국민 모두가 자동적으로 기독교인이 되는 것이기에 전체 국민 교육에 교회가 힘을 모아야 했다. 그러나 일반 대중계층은 대부분 교육을 받지 못한 자들이었다.

니케아 종교회의(The Council of Nicea)가 325년에 개최되었는데 이 종교회의에서는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진리에서 이탈하는 경향을 보이기 시작했다. 헬라철학의 영향에 굴복하고 오히려 헬라철학을 발전시키는 결과속에 철학과 기독교의 혼합으로 함께 교회는 세속적인 분위기가 확산되었고 이로 인해 교회교육은 약화되어 갔다.

그레고리가 590년에 로마감독이 되면서 교황들의 긴 행렬인 교황제도가

28) 潘彼得, 「基督教教育」, (서울:大韓基督教出版社, 1979) .p.21.

29) Ralph P. Martin, Worship in the Early Church, 오창윤역, 「초대교회 예배」, (서울:도서출판 은성, 1990), pp.207-209.

30) 김득룡, 「기독교교육원론」, (서울:총신대학출판부, 1976), pp.26-27.

31) 김영규, 「전계서」. pp.61-62.

시작되었고 그는 교황권의 의식과 지배에 대해서 강조했다는데 이는 가르치는 사역을 소홀히 하는데 더욱 큰 요인이 되었다. 선교사업이 그레고리의 지도아래 활발하게 되고 북쪽 야만인들의 개종을 촉구하고 복음을 알게 되는 동안 교회는 이미 심장에서 부터 죽어가고 있었고 신부들은 점차 무식해지고 있었다.³²⁾

이렇게 교회교육이 무너져 가고 있을 기원 5세기에 정치적으로는 서(西) 로마 제국이 멸망하고, 교육적으로는 로마 교황의 명령으로 교회 이외의 모든 학교를 봉쇄해 버린 때부터 중세의 소위 암흑시대가 시작되었다. 문답 학교도 이 무렵에 없어지고, 13세기까지 일반신도들은 거의 학교교육을 받지 못했다.³³⁾

中世敎會는 교육적 과정을 크게 두 가지로 구체화하였다. 첫째는 비공식적 과정이었고, 다른 하나는 공식적 과정이었다.³⁴⁾ 비공식적 과정은 예배의식을 통한 교육과 정통적 교리를 익히는 것이었고, 공식적 과정은 수도원학교와 감독학교 등이었다.

일반 신도들은 공적 교육기관이 없어 예배에 참석하고 교인으로서의 의무를 수행해 가는 동안 비공식적 과정의 교육기능이 계속되었다. 사도신경을 암송하고 주기도를 드리며 성찬식에 참여함으로써 교육을 받은 것이 사실이다. 그리하여 기원 10세기쯤 해서 聖劇을 통하여 예수의 생애와 그 밖에 여러 성경 주제를 가르쳤다. 일반신도들은 성극을 관람함으로써 종교적 교육을 받게 된 것이며, 정식으로 교육을 받지 못한 일반 신도들에게는 전해 내려오는 신앙에 대한 전통이 매우 중요한 배움이 되었던 것이다.³⁵⁾ 중세기

32) Ben Son, Clarence History of Christian Education(Chicago:Moody Press, 1943), p. 50.

33) 반피득, 「전계서」, p. 21.

34) 송덕준, 「기초기독교교육학」, (서울: 예수교대한성결교회총회교육부, 1986), p. 311.

35) 반피득, 「전계서」, p. 22.

의 교회교육은 여러가지 면으로 복잡하게 변질된 형태였으며 교육의 비공식 과정과 공식 과정이 신앙중심이라기보다는 교황을 신의 대행자로 이행 하였던 교권적 제도와 교리 보존을 위한 교권적 구조로 나타났다.

3) 종교개혁기 교회교육

종교개혁이란 문예부흥의 연장으로 로마 교황을 신과 인간과의 매개자로 하고 로마 교회의 주장을 유일한 최고의 진리로 삼음으로써 교회가 부패하자 이러한 기독교를 개혁하여, 교회 면죄부 등의 부조리를 과감히 척결해서 성서와 개인의 양심에 의하여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자는 운동이었다.³⁶⁾ 13세기 말엽부터 로마 카톨릭의 통치에 반대하는 많은 사람들이 나타났다. 교회의 부패가 격증되자 상대적으로 교회의 영적생활은 최저의 수준으로 떨어졌다. 교회에 반대하는 자들은 교회의 권위자들로부터 異端이라는 명목하에 박해를 받았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교회의 통치를 반대하는 사람들의 수가 증가하였다.³⁷⁾ 그리하여 공동생활형제단에 의하여 영적생활과 기독교 교육에 종교개혁이 단행 되었고, 이들의 영향은 Luther와 Melancton, Zwingly, J.Calvin, J.Knox와 같은 대학 교수들과 성직자들의 지도하에서 16세기에 프로테스탄트의 종교개혁(Reformation)으로 이어지게 되었다.³⁸⁾ 이러한 사람들 중에서 특히,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은 교육에 있어서 일대 혁명을 일으키는 계기가 되었으며 그동안의 로마 카톨릭 교회의 형식주의와 상징주의 교육의 맹종적인 교육형태의 기반을 뒤 흔들어 놓은 것이다. 루터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는다”는 만인제사론을 주장해서 일반 신도가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관계의 가능성을 분명히 해서 교육적 실마

36) E. M. Burns. Western civilization Vol I, (New York, Norton, 1958). pp. 448-450.

37) 김영규, 「전계서」. p. 66.

38) 「상계서」, p. 67.

리를 얻게 되었고 또한 일반 성도가 직접 성서를 읽을수 있도록 독일어로 성서번역을 했다.³⁹⁾ 이처럼 루터는 두 가지 종교적 원칙을 용기있게 주장해서 개신교인 기독교로 하여금 누구든지 교육을 배풀어야 한다는 국민개학(國民皆學)의 교육적 기초를 낳게 한 것이다.⁴⁰⁾

또한 루터는 교육에 대한 관심이 대단히 높았는데 아래에 제시한 루터의 여섯 가지 교육에 대한 공헌은 근대 기독교교육 즉 교회교육의 기초를 낳은 동시에 현대 국민교육의 시초가 된 것이다.

첫째. 누구든지 성서를 읽을 수 있도록 자국어(自國語)로 번역한 것.(독일 말로 번역)

둘째. 특권계급에게만 허용되었던 교육을 누구에게나 고르게 실시한 것.(이것은 오늘날의 국민교육의 발단이 된 것이다.)

셋째. 여자도 남자와 같은 교육을 받게한 것.

넷째. 도시마다 공립학교를 설치한 것.(독일 각 도시 시장에게 편지로 요청)

다섯째. 국가 공공학교를 운영하기 위하여 세금징수의 필요성을 말함, 그 이유는 교육은 곧 국민의 권리이고 의무이기 때문이라는 것을 강조한 것.

여섯째. 의무교육 확립을 주장한 것.

루터의 이러한 주장은 즉시 실현된 것은 아니지만 종교개혁이 진척됨에 따라 개신교인 기독교가 이르는 곳마다 이러한 교육적 운동이 수반되었으며,⁴¹⁾ 개신교의 교육방법의 학습지도에 있어서 형식주의, 암기주의, 주입식 위주의 교육보다 루터는 개인적으로 몇가지 교육방법에 관한 것을 발전시켰다.

39) 오인탁 외, 「전계서」. p.134.

40) 반피득, 「전계서」. p.26.

41) 「상계서」. pp.26-27.

첫째 체벌은 삼가하고, 교실은 매력있으면서 공부를 유쾌히 하도록 마련 되어야 한다.

둘째 敎科目은 아동의 능력에 적당해야 하고 학습과 실습은 병행해야 한다.

셋째 실패와 본보기와 모범은 어떤 언어나 권고보다도 훌륭하다. 따라서 부모나 교사들은 이와 같은 공리를 명심해야 한다. 그는 신앙의 자유에 따라 인간의 자유를 중요시한 결과 엄격한 체벌과 훈련을 배제하고 학생들로 하여금 즐거운 분위기에서 공부하도록 주장하였다.⁴²⁾

지금까지 살펴 보았듯이 중세기 교육은 교권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말한다면 종교개혁시대의 교육은 신앙과 문화라는 차원에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는 점으로 정리할 수 있다.

4) 근대 교회교육

近代 敎會教育은 새로운 社會構造의 변화를 겪는 시기로서 평신도의 교육 운동, 주일학교 교육사업, 조직적인 교육운동 등의 세 가지가 중세기와 다르다.⁴³⁾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끝없이 사랑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안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이루어진 인간을 위한 교육이 수행 되고 있다.

근대 교회교육은 지금 현재는 명칭이 교회교육이라고 불리워지고 있지만 주일학교 교육이 교회교육의 한 방편이 되었고, 이로써 기독교 교육사에 있어서 기독교 교육이라고 하는 거대하고 훌륭한 학문이 태동하게 되는 등

42) 송덕준, 「전계서」. p. 320.

43) 김득룡, 「전계서」. p. 89.

의 교회교육에 있어서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주일학교 운동은 오히려 평신도에 의해 시작되었고 교회밖의 세속적 상황에 뿌리를 두었으며 교회혁신보다 넓은 사회개혁을 목적으로 하여 시작되었다. 주일학교는 구체적으로 Robert Raikes, (1735-1811)라는 한 평신도에 의해서 시작되었다.

Robert Raikes는 교회교육을 사회속에 깊이 뿌리박고 있던 악의 소재인 무지(ignorance)와 나태성(idleness)을 제거하는 길이라고 보았으며, 이 신념의 구체적 표현으로 실시한 것이 주일학교였다. 지식을 제공함으로써 무지를 몰아내고 학교생활을 시킴으로 게으름을 몰아내려는 예방 프로그램을 마련하기 위해 세워진 주일학교였다.⁴⁴⁾

1780년 Gloucester시의 Mrs,King을 처음 교사로 하고, 킹여사 집에서 최초의 주일학교는 시작되었고, 레이크스와 스톡크 목사가 보증인이 되었으며 교과과정은 기독교 정신하에서 읽기, 쓰기와 수학을 가르쳤으니 그것을 3RS(讀,書,算) 교육이라 하였다.⁴⁵⁾

또한 아침에는 10시에서 12시까지, 오후에는 1시에서 5시 30분까지 공부를 계속하였고 예배시간에는 모두 함께 교회로 갔다. 1783년 처음으로 글라우세스터시 신문에 主日學校가 소개되었고 이후 주일학교 운동은 기적적인 힘과 용담으로 영국, 웨일즈, 미국을 중심으로 전 세계로 퍼져 나갔다.⁴⁶⁾

주일학교 운동이 전 세계로 퍼져 나가면서 많은 발전과 함께 좋은 결과들이 일어나고 학생 숫자도 많이 늘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영국과 미국의 주일학교 특징을 살펴보도록 하자.

영국 주일학교의 특징은 교회와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이 한 사람의 의식

44) 「상계서」, p. 89.

45) 김폴린, 「한국 기독교 교육의 역사」, (서울:대한기독교서회, 1992), p. 69.

46) 은준관, 「교육신학」, (서울:대한기독교서회, 1976) .pp. 121-122.

있는 신도의 자발적인 행위로 해서 출발된 사회봉사로써 교회교육과 일반 사회교육이 합쳐져서 작용된 운동이었다.⁴⁷⁾

그 반대로 미국의 주일학교는 처음부터는 아니었지만 기독교의 교육적인 면과 신앙적인 면에서 실시가 되었고, 처음에는 영국의 형태를 본받아서 가난한 어린이들을 위한 교회학교로 시작되었다. 이즈음의 주일학교는 대개 6세부터 14세까지의 어린이들을 모아 교육했는데 교리문답서 공부를 받을 수 있는 정도가 못되는 아이들에게는 문맹교육을 선행시키기도 했다. 이러한 미국 초기 주일학교의 구체적인 프로그램은 그 성격상 일반 교육적인 색깔이 매우 짙었고, 주로 읽기와 쓰기와 셈하기 그리고 어느 정도의 종교 훈련을 실시했다.

미국 초기 주일학교의 종교교육에 대한 각성과 함께 신앙부흥운동 (Revivalism movment)의 영향에 의해 주일학교 운동이 급격히 확장되어 나갔다. 20세기 초에 미국에는 약 2천1백만명의 주일학교 학생과 3천을 헤아리는 주일학교를 가지게 되었다.

1824년에는 미국의 주일학교 연맹이 결성되어 40여년간 미국의 주일학교를 이끌어 갔고, 주일학교 연맹은 기독교 교육에 활용할 많은 문서들을 펴냈으며, 1872년에는 국제통일공과를 개발했는데, 세계통일공과는 세계 각처의 주일학교에 속한 전 연령층의 학생이 동일한 주일에 동일한 성경본문을 가지고 공부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었다.

미국의 주일학교는 영국과는 달리 뚜렷하게 교회를 배경으로 삼아, 개척교회 주일학교, 도시 전도학교, 개척지 주일학교의 세 가지 유형의 주일학교 형태로 나뉘어 있었다.

그리고 이 학교들은 주로 죄, 용서, 회개, 救援만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철

47) 송덕준, 「전계서」, p. 329.

저한 個人救援 위주의 신앙만을 가르치는 敎育을 했다.48)

48) 「상계서」, pp. 329-332.

Ⅲ. 韓國 教會教育의 變遷

1. 韓國 초대교회의 교회교육

1) 천주교

韓國 초대교회의 교회교육을 1592년에서 1910년으로 본다면, 우리 조상들이 천주교 신자를 처음으로 접촉하기는 일본인 도요도미 히데요시가 군대를 거느리고 한국을 침략하기 시작하던 때인 1593년(선조26년)이었다.

임진왜란때에 일본군 지휘관이었던 고니시 유키나가 카톨릭 교회 신자였던 관계로 예수회 신부였던 Father Gregoriode Cespdes도 함께 왔었던 것이다.⁴⁹⁾ 그 후 1594년에서 1595년 사이에 일본에 포로로 끌려가서 세례 받은 이들이 무려 200명이나 되었고 그후에는 계속적으로 수요가 점점 늘어 났으며 한국은 처음 일본에 주재하고 있는 천주교 선교사로 부터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었다.

1603년에 와서 권 빈센트가 일본에서 모레이엣 신부에게 세례를 받고서 수사(修士)가 되었고 1604년에는 한국에 현존된 가장 오래된 서적인 “칠극(七克)” “천주보의(天主寶義)”를 명나라에서 발간했으며, 1605년 일본에 간 한국인 포로가 교리서를 가지고 귀국하게 되었다. 그리고 1610년에 홍길동전을 쓴 허균(許均)은 이조 선조때 사람으로서 북경에서 입교하였던 것이

49) T. J. Campbell, The Jesuit 1534-1921, (London, The Encyclopaedia Britanica Press, 1921), p. 242.

다.50)

1777년 이벽이라는 사람은 카톨릭교회에 관한 서적을 읽고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게 되었고, 그의 친구 이승훈이 부친 이동옥을 따라서 중국에 간다는 사실을 알고서 카톨릭 서적을 가져올 것을 부탁해서 여러가지의 카톨릭 서적을 가져 왔는데 이벽은 이 책들을 읽고서 열심히 카톨릭 신앙 운동을 하였던 것이다. 결국 그는 1801년에 순교하게 되었는데 이 때에 카톨릭 교회는 성경을 가르쳐 주지를 않고 교회의 제도만 가르쳤기 때문에 좋은 결과를 얻지는 못하였다.51)

2) 개신교

기독교는 천주교보다 늦게 들어왔지만 매우 순탄했다. 우리나라가 구미 여러나라와 수교가 이루어짐으로써,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게 된 후에 선교사가 들어 왔기 때문이다.52)

1861년 9월1일에 바실 홀씨가 중국 선교사 모리슨 목사의 부탁을 받아 군산만으로 들어와서 관리들에게 성경과 그리고 선물도 함께 주었던 것이며53) 1832년에 독일인이었던 Cal Gutzlaff 선교사가 충청도 홍주 고대섬 등 도서 지방에서 전도하면서 한문 성경을 주고 복음을 전하고 가르쳤던 것이다. 그러나 입국하려 했지만 뜻을 이루지 못하고 돌아갔다.54)

그 후 1866년 8월에 스코틀랜드의 선교사 R.J.Thomas목사가 배를 타고

50) 고계국, 「평신도주일공과(1991년도)」, 기독교대한감리회평신도국, 1990, p. 96.

51) 유흥열, 「高宗治下 西學受難의 研究」, (서울:乙酉文化社, 1973), pp. 6-7.

52) 「상계서」, p. 97.

53) 김창영, 「기독교교육성장배경연구」, (충신대목회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1991), p. 13.

54) 고계국, 「전계서」, p. 97.

대동강을 통하여 평양에 왔다가 대동강에서 순교하였고,⁵⁵⁾ 이 때에 성경을 받았던 최치량이 기독교인이 되었다.⁵⁶⁾

토마스목사의 뒤를 이어서 John Ross, 매킨타이어 목사가 1873년에 만주 땅에 와서 한국인을 찾아 전도하고 신약성서를 한글로 번역하여 국내에 보급시켜서 선교와 교육의 기틀을 마련하는데 노고가 컸다. 또한 이수정은 1882년 임오군관뒤 수신사(修信使) 박영효 일행을 따라 갔다가 일본에서 기독교 신자가 되었는데 일본에 4년간 머물면서 성서를 한글로 번역하고 많은 선교사와 사귀면서 지내다가 1866년 귀국과 동시에 체포되어 殉教했지만 그가 번역해서 출판한 책은 마가복음이었고,⁵⁷⁾ 1887년에는 신약전서 전권이 인쇄되어 한국인들의 손에 한글로 된 성경이 들어오게 되었는데 이렇듯 한국인 지도자의 활약도 매우 컸던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개신교가 발을 내딛게 된 것은 한국 선교의 선구자인 알렌이 들어오면서 부터이다. 1884년 1월30일에 한국 공사관 전속 의사로 내한한 알렌은 고종의 신임을 받던 민영익을 잘 치료시켜 한국 정부로부터 신임을 받게 됨으로써 비로소 오랫동안 닫혀 있었던 복음의 문은 열리게 되었다.⁵⁸⁾

영국에서 시작된 주일학교 운동이 선교사들에 의해 우리나라까지 들어왔는데 교회교육이라 할 수 있는 주일학교교육이 1888년 1월15일에 서울 이화학당에서 처음 어린이 12명과 부인 3명이 모여서 성경을 공부한 것이 최초의 주일학교 탄생이었다. 1882년 2월에는 스크랜톤 부인이 주일 밤마다 여성을 위하여 성경공부를 시작하여 믿게 된 사람이 많아졌고, 1894년 1월 8일에 Moffet 선교사가 평양에서 22명의 학생으로 학습반을 조직하여 성경

55) 「상계서」, p.97.

56) 김창영, 「전계서」, p.14.

57) 고재국, 「전계서」, pp.97-98.

58) 김창영, 「전계서」, p.14-15.

과 그리스도의 교리를 가르쳤다. 이렇게 평양에서부터 주일학교 운동이 시작되자 점차 전국에 퍼져서 1908년에 서울에서도 시작되었다고 하며 이 때에 사용한 주일공과는 통일공과이었다.⁵⁹⁾

2. 일제시대의 교회교육

일제시대의 교회교육은 1910년부터 1945년 해방때까지의 교육 시기로 참으로 아주 어두웠던 시대라 할 수 있다. 1910년의 한일합방과 함께 우리 민족의 수난이 시작되었고 교회에 있어서는 많은 순교자를 낳을 정도로 일본의 압제가 많았던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어두운 시대에 있어서도 福音의 빛은 찬란하게 빛났었고 복음을 뜨겁게 사랑했던 선교의 사역자들은 목숨을 아끼지 않고 뜨겁게 주어진 위치에서 使役을 감당했던 것이다.

1910년부터 1912년까지는 선교회 공의회에서 무스박사를 비롯하여 Rev. Pieters와 Dr. Gale의 집필로써 만주 통일공과를 발행하게 되었고

1913년에 와서는 교재 내용도 변하게 되었으며 교재에 대한 정비도 힘을 썼다. 이같은 사실은 교육 내용이 그만큼 질적으로 변화되고 발전되어 가는 증거로 집필자들의 변화와 함께 교회교육은 큰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다는 사실이다.

그동안 선교회 공의회에서 발행해 오던 것을 1913년부터 대한예수교 장로회에서 발행하게 되었고 이때부터 공과를 각부(유년, 초등, 중등, 고등)의 계단공과로 편집 발행하게 되었다. 이 계단공과의 집필자는 윤산은, 기의남, 서로득, 도여명 등의 선교사였는데 안타깝게도 계단공과는 1년만에 중단되

59) 「상계서」, pp.15-16.

고 말았던 것이다.

그후 도마옌과 배유지 선교사의 집필로 통리성정보통공과라는 책이 나오
고, 1919년 1월5일부터 출판되고 4년간 주일학계라는 잡지도 발행됐으며,
1921년에 주일학교 신보, 1929년 1월에 교회학교 선생이란 잡지를 발행해
서 계단공과에 맞는 학생용 공과도 게재해서 교회교육에 많은 역할을 담당
했다.⁶⁰⁾

일본은 우리나라에 1918년에 신사를 들여와서 1925년부터 서울 남산에
조선 신궁을 세우고 전국각지에 신사를 세웠으며, 1930년대에 만주침략을
계기로 신사참배의 문제는 기독교인에게까지 대두되었다. 그리하여 결국
1937년경부터는 왜정의 탄압 정책으로 인하여 교회의 활동은 간섭을 받게
되었고 일본 천황숭배를 교회에 강요하는 데까지 이르렀던 것이다.⁶¹⁾

한국 주일학교의 발전속에 교회교육은 1911년부터 1940년에 이르기까지
약 30여년간 많은 발전을 보게 되었지만 1940년 태평양전쟁의 발발로 인하
여 미국 선교사들이 귀국함으로써 결국 한국의 교계는 선교사업의 중단과
함께 일제시대의 교회교육은 침체상태로 들어가고 말았다.

장로교와 감리교는 일제의 강압으로 일본이 패망하기 2개월전에 통합을
했으며 성결교회는 폐쇄된 것이다.⁶²⁾

3. 재건기의 교회교육

재건기의 敎會敎育에 있어서는 1945년부터 1960년으로 보는데, 1945년

60) 「상계서」, p.17.

61) 김폴린, 「전계서」, p.216.

62) 김득룡, 「전계서」, p.162.

8월15일 해방이 됨으로 무너졌던 제단이 다시 수축되고 잠잠했던 주일학교 운동 즉 교회교육이 다시 일어날 기회가 왔다. 그러나 불행스럽게도 남북이 양분되는 새로운 위기에 직면하였다.

1947년 1월 14일 서울 새문안 교회에서 김판식 목사의 주선으로 새로운 재건운동이 시작되었으며, 이 때에 성결교회가 함께 손을 잡게 된 것이다. 주일학교 연합회 주최로 서울 종로에 있는 중앙감리교회에서 주일학교 강습회가 개최되었는데, 이 때에 참석한 교사수는 약 300명 가량에 이르렀었다.⁶³⁾

또 하나의 변동사항은 1947년 세계 주일학교 대회(The World Sunday School Convention)가 세계 기독교 교육연합회로 명칭을 바꿔 기독교에 대한 이념이 주일학교에 국한하지 않고 좀더 광범한 내용을 갖게 되자 1948년 3월 23일 제 2회 총회때에는 조선 주일학교 연합회라는 명칭을 대한기독교교육협회로 개칭 하게 되었다.

해방후의 교회교육재건운동은 1950년 6월 25일 북한 공산주의자들의 불법 남침으로 무너지고, 1952년 1월 10일 부산 장로회 중앙교회에서 재출발한 것이 오늘의 교회교육이다.⁶⁴⁾ 북한 공산군의 침입으로 인하여 수만명의 교인들이 38선을 넘어 왔고, 구사일생으로 월남한 그들의 신앙심은 대단하였다.

당시 정계의 혼돈으로 교회안에서 교회교육운동이 활발하지 못했으나 절제회, YMCA, YWCA, 주일학교와 선교회 등의 여러 사업기관들은 교회교육을 재출발하기 위해 힘쓰고 있었다.

남녀 청년들은 교회로 모여들고 주일학교는 어느 교회를 막론하고 초만원이 될 정도로 재건기의 교회교육은 여러가지의 악조건 속에서도 활발하게

63) 「상계서」, p.163.

64) 「상계서」, pp.163-164.

이루어졌다.⁶⁵⁾

4. 부흥기의 교회교육

부흥기의 교회교육은 1960년대부터 1970년대까지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때는 어려움과 황금기가 교차되는 시기였다.

해방에서부터 1960년대까지 교회는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 상황의 도전을 계속받아 왔다. 국토의 분단, 민족상쟁의 6.25 동란, 자유당정권의 부패, 빈곤의 격차 심화, 4.19 혁명, 군사정권의 등장 등 격동하는 사회상황의 변동이 기독교에는 새로운 도전으로 다가왔었다. 그러나 교회는 문제의식조차도 갖지 못했거나 사회 상황에 편승하거나 동조하거나 하여 역사변혁은 고사하고 역기능적 행태들을 보여 왔다.

이렇게 교회가 상황에 대한 문제의식을 자각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교회교육도 자연히 그 교육적인 목적, 방향, 원리, 내용, 과정속에 시대적 문제를 교육적 과제로 도입하지 못했다.

그 예로서 解放후에 즐기치게 진행되어 온 교파분열상과 대립상황속에서 교회교육이 自派敎壇 위주의 교육활동을 강화해 왔던 것을 들 수 있다.

각 교단의 교육지도자들은 자기 소속 교단이 교육활동의 정착과 발전에만 급급했기 때문에 일반 학교가 노정하고 있는 거국적인 교육문제의 해결이나 교회가 사회로부터 도전받고 있는 그밖의 문제에 대해 교육적으로 대처해 가기 위해 뜻과 힘을 모으는 일에 극히 소극적이었다.⁶⁶⁾

그러나 각 교회는 서서히 부흥에 접어들어 외국에서 기독교 교육을 공부

65) 김플린, 「전계서」, p. 218.

66) 정용섭, 「현대기독교교육의과제와 방법」,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1). pp. 82-83.

한 학자들이 등장을 하고 각 신학대학에서는 기독교교육연구소를 세워서 교회교육의革新을 시도해 보려고 했다. 하지만 한국에 맞는 교회교육의 비전과 방향을 제시하기 보다는 외국에서 배우고 본 것을 그대로 한국 교회의 실정에 맞지 않게 도입하려 하였고 이 시대가 감당할 수 있는 宣敎的 교육 방안을 전혀 고려하지 못했다.

따라서 옛모습의 교회교육이 그대로 이어져 내려오고 있었고 각 교회는 교단 중심의 교육에만 전념하고 있었으니 큰 결과를 기대할 수 없었다.

1963년 총회 신학교 교수들이 주일학교 교육의 긴요성을 인식하고 한국 기독교교육연구회를 조직하여 총회의 인준을 받은 다음 교사양성협회의 교재를 번역 편집해서 교사양성 통신강좌를 발행했다. 그리고 1961년 제16회 총회이후에 분열한 성결교단을⁶⁷⁾ 비롯 각 교단마다 교회교육의 중요성을 재인식하고 교회교육에 필요한 보조교재를 만드는 일 등을 추진하고 국내 교사 양성과 교재출판에도 힘을 썼다.

5. 안정기의 교회교육

점차 교회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과 필요성이 느껴지면서 각 교회가 양적으로 세계 어느 교회도 따를 수 없으리만큼 엄청난 속도의 발전을 거듭하고 있던 시기가 바로 1970년대 이후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각 神學大學校에서는 基督教敎育學科를 교육부에 신청 인가를 받아서 전문 지도자를 양성하게 되었다. 부설기관으로 기독교 교육 연구소가 각 신학대학교에 설치되어 연구에 힘을 쓰고 있는 것은 참으로 다행스러

67) 오경석, 해방30년의기독교교육과 그 방향모색연구, (서울신학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1981), p. 8.

운 일이고 우리나라 교회교육을 한층 밝게해 주는 계기가 되었다.

이 기간동안 교회교육의 발전은 양적인 면에 치중을 해 왔고 교회의 세 확장을 위한 수단적인 교육이 되었으니, 선교와 사회 교육적 차원의 교육기능은 다하지 못하였다.⁶⁸⁾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구속자로서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의 삼중직을 수행하셨다.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신자들이 그의 종으로서 수행하여야 할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로서의 기능을 가진다.

특히 목회자가 감당해야 할 사명은 왕직, 제사장, 선지자직으로서 충실히 이 세 가지의 사명을 함께 갖춰서 잘 감당을 해야 한다. 현재 우리 한국의 목회자는 왕직과 제사장직은 잘 감당하고 있는데 선지자직은 전혀 감당치 못하고 있다. 일부만 참여하고 오히려 피했기에 현재 우리나라의 교회교육은 사회교육적인 측면과 선교적인 측면에서는 잘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이다. 교회교육의 목적이 성도들의 질적인면 보다는 교회형성을 위한 교육이었기 때문에 선교 2세기를 맞이한 지금 60년부터 80년대말까지 양적인 면에서는 크게 성장을 했다가 90년대인 지금은 양적인 면에서 점점 후퇴하고 있는 현실이다.

68) 대한기독교교육협회, 「한국기독교교육사」, (대한기독교교육협회, 1973), p. 56.

IV. 韓國 教會教育의 實想과 運營改善 方向

1. 한국 교회교육의 실상

1) 교회교육 대상과 영역

(1) 아동부

아동부는 국민학교 학생만 관계되는 것이 아니라 이 안에서 영아부, 유치부, 유·초등부까지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 영아부때에는 부모의 교육에 많이 의존되기는 하지만 그래도 교회교육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그냥 지나칠 수가 없다.

영아부는 교회와 가정을 적절하게 잘 연결시켜 주는 단계이면서 두, 세살이 될 때까지 관심을 잘 유지시켜 유아부로 올라가는 단계이기 때문에⁶⁹⁾ 아동부의 근본이 된다. 1884년에 그 명칭사용이 시작되었지만 영아부는 새로운 부모들에게 영적인 봉사를 제공하는 최초의 단계로 그 기능은 점차적으로 확대되어 왔다. 지금은 어린이들에 대한 교회의 확고한 봉사와 책임을 강조하는 교회교육기간의 중요한 단계의 하나이기 때문에 영아부는 주일학교에 흘러 들어가는 강줄기의 원천이다.⁷⁰⁾

69) 에드워드 헤익스, 정정숙역, 「기독교교육학개론」, 성광문화사, 1979, P.147.

70) The Cradle Roll Department of the Sunday School(Nashville: Sunday School Board of the Southern Baptist Convention, 1941), pp.12. 20.

유치부는 어린이가 일생동안 인간이 할 수 있는 경험 중에서 가장 많은 경험을 하게 되는 단계의 기간이다.⁷¹⁾ 어린이들이 학교에 들어가기 전에 이들의 활동은 놀이로 변화되고 세상이 그들의 놀이터로 보이게 되는 시기라고 할 수 있다.

어린이는 하루종일 먹고 자고 노는 일로 보낸다. 이 놀이는 어린이의 몸, 마음, 성격에 많은 가치를 가지는 것이다.⁷²⁾ 또한 정신적으로는 질문자로 변해서 질문을 시작하고 지식을 얻는 시기이며, 이 시기는 바로 이를 가르치게 되는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부모와 교사들은 어린이의 질문에 솔직히 대답하는 것이 중요하다.⁷³⁾

가정은 하나님에 대한 최초의 교육 기관이고, 인격 형성의 요람이며, 교사요, 선교기관이다. 또한 문화의 교환자이고 악에 대한 장벽이며, 교회의 방파제이고 국가의 초석이다.⁷⁴⁾ 그러하기에 무엇보다도 가정과 교회는 유치부 교육을 대행해야 하고 이들에게 예배를 가르쳐야 한다.

유, 초등부인 국민학생들은 사회 생활과 사회 접촉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데, 유년기에는 하나님에 대한 의식을 갖고 초등부 때에는 이상을 갖기 시작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교회교육에서는 이들을 중요하게 여긴다. 유년부는 지적으로나 영적으로 가르치기에 아주 중요한 위치에 속해 있고, 유년부 어린이들은 영, 유아부나 유치부에 비하여 수준이 아주 높은 것이다.⁷⁵⁾

초등부는 국민학교 4, 5, 6학년에 다닐 나이인 9세에서 13세의 어린이들이다. 초등부 어린이들은 신체적인 발달과 흥미, 능력의 측면에서 다양성을

71) A. Jersild and associates, *Child Development and the Curriculum* (Teachers College, Columbia University, 1946), p. 58.

72) 반피득, 「전개서」, p. 182.

73) 「상개서」, p. 183.

74) *Helping Families Through the Church* (St. Louis: Concordia Publishing House, 1957), pp. 61-68.

75) 에드워드 헤익스, 「전개서」, p. 188.

나타내고 있으며, 이들은 무엇이든지하기를 좋아하고, 호기심이 매우 많은 때이다.

또한 배우는 것을 열망하고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를 좋아하면서 강한 정의감을 갖고 경쟁을 하며, 친구들로부터는 인정 받기를 원한다. 그리고 자신들의 행동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⁷⁶⁾

(2) 중·고등부

중등부 학생들의 심리적 특징 가운데서 가장 뛰어난 표현이 있다면 그것은 과도기(transition)라고 하는 말이 적당할 것이다. 육신도, 사상도, 신앙의 특성도 모조리 전의 것에서 탈피하고 새로운 영역을 접하게 되는 시기라고 할 것이다. 육신은 점점 성숙한 인간에게로 그 특징이 바뀌어져서 어리고 유치한 모습이 많이 없어지고, 정신도 철이 없던 과거를 부끄러워 할만큼 철이 든 상태로 성장한다.⁷⁷⁾

중등부 학생들은 추상적 개념을 다루게 됨으로 능력이 자란다. 그들은 구체적인 것과 더불어 상징적인 개념을 사용하기 시작하고 이 힘은 점차적으로 자라나게 되지 순식간에 생겨나지 않는다.⁷⁸⁾ 뿐만 아니라 중등부 학생들의 기본 관심은 모험, 우정, 지식, 탐구, 소유, 즐거운 시간, 율고 그룹, 삶의 철학, 하나님 등에 관한 경험과 의미있는 분야를 포함한다.⁷⁹⁾

중등부 학생은 계속해서 도전하기에 혼란을 주는 많은 질문을 통해서 삶의 문제들과 직면한다. 이성에 관하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레크레이션과

76) 「상계서」, pp.195-198.

77) 허일룡, 「교회교육가이드」, 성문출판사, 1989, pp.63-64.

78) 에드워드 헤익스, 「전계서」, p.213.

79) Miford Sholund, Teaching Junior High Students, NSSA-Link(July, 1960), p.7.

흥미란 무엇인가? 성공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행복이란 무엇인가? 삶에 대한 야망이란 무엇인가? 돈을 버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이란 무엇인가? 등에 대한 모든 문제들은 그들의 삶과 관심의 일부로, 자기자신의 삶을 어떻게 만들까를 알려고 한다.⁸⁰⁾

고등부의 청소년이란 社會學的으로는 의존적 아동기에서부터 자립적인 성인기로 가는 전환기이며, 心理學的으로는 하나의 주어진 사회에서 아동의 행동과 성인으로서의 행동을 구별해서 새로운 적응을 해야 하는 한계 상태를 의미한다.⁸¹⁾ 오늘날 교회가 청소년들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기대를 갖는 것은 그들이 미래의 희망이며 귀한 가능성의 존재들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청소년들이 아무리 귀한 가능성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그들을 바르게 선도하지 못하면 그 기대가 무너지고 말 것이다.⁸²⁾

청소년기인 고등부 학생의 심리적 특징은 한마디로 정열(aspiration)이라고 하겠다. 큰 포부를 품고 그것을 이룩하기 위해 정열을 쏟아붓는 것이 그 대표적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이성적이고 知的인 면보다는 감정적, 의지적인 면이 더 강하여 견잡기 어려운 행동을 감행하여 부모나 교사를 놀라게 할 때가 많다.

마치 신앙적으로 깊은 체험이 이루어지면 탈선됨이 없고 건전한 신앙을 유지하게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지혜임과 같이 이 시기의 학생들은 그들의 감정과 의지를 이성과 지성으로 관리해야 건전한 인격적 향상과 발전이 이룩될 것이다.⁸³⁾

80) 에드워드 헤익스, 「전계서」, p. 216.

81) Rolf E. Muuss, Theories of Adolescence, 송주두 역, 「청소년 이론」, (대구: 계명대학교 출판부, 1981), p. 10.

82) 손병순, 미래의 청소년상, 2천년대를 향한 기독교교육의 비전, (서울: 기독교교육협회, 1980), p. 98.

83) 허일룡, 「전계서」, p. 66.

(3) 대학·청년부

대학·청년부의 연령층은 18세에서 25세에 해당된다.⁸⁴⁾ 그들의 대다수가 대학에 다니고 있고, 그렇지 않은 다른 사람들은 이미 직장인으로서 일을 하고 있는 자들이다. 그런데 만일 교회가 이들을 나이많은 성인그룹과 같이 다룬다면 그들은 교회에 머무르지 못할 것이다. 그러하기에 교회가 젊은 이들에게 특별한 것을 제공해야만 한다.

대학·청년부의 학생들은 많은 욕구를 가지고 있으며, 친구들을 구한다. 또한 이들은 인정받기를 원하고 확신을 갖는다. 젊은 이들에게 과제가 주어지면 그들은 인정을 받고 있다고 느끼고 소속하고 있다고 생각 하는 등 힘과 소망을 가지고 있고 모험을 추구한다. 어떤 사람이나 어떤 것을 따르려고 하며, 큰 이유를 위해 봉사하려 한다. 교회는 젊은 대학·청년들을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속으로 이끌어야 한다.⁸⁵⁾

(4) 장·노년부

장년부는 인생에 대한 경험 축적으로 삶에 대한 관점이 넓어지고 인식이 깊어지는 때이므로, 가르침에 있어서 깊은 신앙을 갖도록 하는 내용을 다루어 주어야 하는 시기이다.⁸⁶⁾

장년들은 근본적인 욕구보다는 피상적인 것에 흥미를 갖도록 강요를 받는다. 이 범주 안에서 나타난 문화적, 연령적 그룹이 다양한만큼 장년들의 흥미도 다양하다. 장년들의 흥미는 건강, 종교, 우정, 직업, 정치, 운동, 경제와

84) 박희성, 「청년회 운영과 실제」, (서울: 성광문화사, 1976), p. 22.

85) 에드워드 헤익스, 「전계서」, pp. 236-237.

86) 손종국, 「청소년 교육」, 청소년교육 선교회, 1990, p. 47.

레크레이션 등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미치고 있으며, 이러한 흥미 중의 하나인 장년이 그룹 학습에 참가하는 것이 초점이 될 수가 있다.⁸⁷⁾

성숙한 크리스찬 장년들은 그들의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⁸⁸⁾ 할 뿐만 아니라 세속에 대하여 저항할 수도 있어야 한다. 그리고 60세 이상의 노년기가 되면 고독하고 삶의 의미를 상실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동년배들끼리 짝을 맺게 해 주고 사회에서 노인들이 역할을 발휘하고 교회교육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 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어야 할 뿐만 아니라 삶을 마무리하는 단계에서 필요한 준비를 갖추도록 영적으로 도와 주어야 한다.⁸⁹⁾

한편, 노년부는 가정과 사회에서 경로 효친의 사상과 노부모 공경의식의 감퇴, 핵 가족화로 인한 생계유지의 어려움까지 따르고 있고, 이와 더불어 생활주변에서는 의식의 차이까지 생겨서 부딪치는 문제가 많다. 그러므로 노인들의 이러한 문제들을 극복하고 최소한으로 대처해 나아가게 하기 위해서 교회교육이 필수적으로 필요하다.⁹⁰⁾

2) 교회교육 실상

(1) 교육목표

교회교육이 神學에 입각한 행동이라고 할 때 교회교육 목표는 교육신학의 정립⁹¹⁾에 있다. 기독교라는 명제의 해석에 따라 그 기독교가 지니는 인간

87) 에드워드 헤익스, 「전계서」, p. 258.

88)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10:5.

89) 손종국, 「전계서」, p. 48.

90) 박재간, 임춘식, 노인학교 노인교실의 현황과 대책에 관한 조사연구, (서울: 한국노인문제연구소, 1983), p. 6.

91) 손종국, 「전계서」, p. 48.

상, 가치관 등에 의지해서 교육의 방법을 빌어 교육하는 것이라고 볼 때 각 교회들 사이에 그리고 각개교회 내부에서의 다원적인 신학적 가치관의 만연으로 인해 확고한 교육의 목표가 설정되지 못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교회교육이 서 있는 기초가 뿌리로부터 심하게 흔들리고 있는 이유중의 하나이다.⁹²⁾

그러므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금의 敎育理論이나 신학적 원리를 재검토해야 한다.⁹³⁾ 왜냐하면 敎育神學的 인식의 미약함으로 인해 교회교육의 목표가 불명확할 뿐만 아니라 학습자들은 기독교인으로서의 확실한 가치관과 생활방식을 습득할 수 없게 되기 때문이고, 교회교육의 目標가 뚜렷하지 않을때 결국 교회교육은 실패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교회교육은 반드시 목표가 있어야 한다. 교회교육이 성공한다 할지라도 목표가 미약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 즉 목표없는 교회교육은 방향지향성을 상실하기 때문에 그 교육은 실제적으로 무의미하다고 말할 수 있다. 成功的인 교육은 목표가 明確해야 한다. 사실 성공은 목표 없이 일을 해서 되는 것이 아니다.⁹⁴⁾

(2) 교육내용

현재 교회에서 실시하고 있는 교회교육의 내용은 예배를 통한 설교, 그리고 20, 30분 정도 실시하는 공과공부가 거의 전부이며 일부 특별 프로그램

92) John H. Westerhoff III, Will our Children have Faith?(New York: The Seabury Press, 1979). 정용섭 역, 「교회의 신앙교육」(서울: 대한기독교 교육협회, 1983), p. 28.

93) 「상계서」, p. 23.

94) Peter P. Person, An Interoduction to Christian Education(Grand Rapids: Baker Book House, 1958), p. 68.

을 계획하여 실시하고 있으니, 크게 변하지 않은 과거의 교육형식을 그대로 실시하고 있는 것에 한정된다. 그러하기에 실제 교회교육 내용은 매우 미비하고 약하다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대부분의 교회학교에서는 예배를 통한 설교나 성경공부 모임에서 기독교 교리나 교회제도, 기독교인의 윤리규정 등에 대해서 주입식으로 가르치고 있을 뿐 내용적으로 대단히 문제가 된다는 사실이다.

이같은 사실은 학습자들이 진정한 의미에서 성서가 증언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성숙해 가는데 필요한 도움을 주지는 못한다는 것이다. 聖書에 관해서 배우고 알게 되는 것과 성서가 증언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일 사이에는 무한한 거리가 있다.⁹⁵⁾

교회교육에서 행위 과정에 고려되어야 할 내용의 영역은 최소한 다음의 3가지 차원에서 계속 물음이 제기되어야 할 것이다.

① 교회는 회중들로 하여금 크리스찬됨의 의미를 자각하게 하고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과 계속적인 人格的 關係속에서 靈的 生活을 지속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인가라는 것이다. 즉 개인의 자의식 개발 관계이다.

② 교회는 어떻게 회중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지체됨을 자각하게 한다. 共同 運命체로서 그리스도의 몸을 형성하고 개발함에 있어 개인에게 주어진 재능(은사)을 최대한 발전시키고 계속 참여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인가에 두고 있다. 이것은 공동체의식의 개발을 말한다.

③ 교회는 어떻게 會衆들로 하여금 그들의 삶의 현실 속에서 역사형성을 위한 자각과 함께 책임적 존재로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울 것인가? 이것은 바로 歷史意識의 개발이다.⁹⁶⁾

95) John H. Westerhoff III, 「전계서」, pp. 52-54.

96) 오인택 외, 「전계서」, p. 161.

(3) 교육방법

교회교육은 어디까지나 교육 대상자를 人間으로 형성하며 이를 사회화하는 과정이다. 인간을 형성하고 사회화하는 과정을 어떠한 방법으로 이끌어 나갈 것인가가 敎育方法의 문제이다.⁹⁷⁾

현재 교회학교의 교회교육 방법은 공과공부, 예배를 통한 주입식, 강의식 교육이다. 이런 식의 교회교육의 방법이 계속 이어져서 내려 오고 있다는 사실이다.

훌륭한 교육의 목적을 성취시키는데 있어서 가장 좋은 방법을 사용하 것은 당연하고, 방법이 없는 교육은 있을 수가 없다.⁹⁸⁾ 올바른 교육방법은 교사와 학생 쌍방간의 의사소통이 잘 이루어지도록 돕는 것이어야 하는데 이 의사소통은 학생의 흥미, 욕구, 능력을 고려하는 데서부터 시작된다.

그림, 용판, 인형을 사용한 이야기법, 주의력이 약한 학생의 활동과 교육을 연결하는 공작법, 교사와 학생 또는 학생과 학생 사이의 대화법, 역할극, 슬라이드, 영화, 그림이나 글쓰기를 통한 자기표현법, 교과내용에 대한 조사 연구방법 등 여러가지 다양한 방법들이 동원될 수 있겠다.

敎會學校에서 이런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어야 할 책임은 바로 교회이며 이러한 책임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효과적인 교육방법을 도입, 꾸준히 연구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⁹⁹⁾

(4) 교사와 교회교육행정

97) 송덕준, 「전계서」, p.174.

98) 「상계서」, p.176.

99) 손종국, 「전계서」, pp.48-49.

① 교 사

한국교회의 가장 취약한 부분이라고 지적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교사의 문제와 교회교육행정이라고 할 수 있다. 실제로 대부분의 교회학교들이 교사난에 허덕이고 있다. 교사직을 맡으려고도 하지 않지만 현재 활동하고 있는 교사도 직장인 혹은 학생층으로 구성됨으로 인해서 시간의 부족과 성의부족으로 敎會學校가 피폐해 가고 있다. 따라서 교회학교가 실제적인 교회교육의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또 교사의 연령, 교사의 수준, 교사의 신앙적 태도들이 교회교육의 내실화를 저해하는 요소가 되고 있다. 이는 20대 초반의 미성숙한 젊은이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의 인격과 전문교육의 결여, 교회교육에 대한 교사의 사명감 부족과 전문적인 훈련의 부족 상태와 함께 그들의 신앙적 태도도 가지각색의 형태로 임하고 있기 때문이다.

敎師는 자신의 삶 속에서 학습자와 삶을 나눌 수 있어야 하며, 그들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는 모범자, 삶의 촉진자가 되어 줄 수 있는 성숙한 신앙인이 되어야만 한다.¹⁰⁰⁾ 따라서 교사의 모집과 훈련 그리고 계속되는 홍보와 권고로 전 교인에게 교사의 사명에 대한 거룩성을 일깨워야 할 것이며, 교회학교의 발전과 교회교육의 발전은 교사의 발전이 선행되어야만 하기에 교사의 발전을 위해서는 교사들에게 信仰的, 知的, 技術的 훈련을 쌓게 할 필요성이 있다.¹⁰¹⁾

교회학교 교사는 첫째로 자기 자신의 학습지도 행위에 대한 아주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고, 둘째로는 학생의 행동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

100) 온준관, 「왜? 기독교교육 교육을 중심으로하여」, (서울:성광문화사, 1976), p. 23.

101) 김태원, 「교회의 교육적 사명」, (서울:종토서적, 1987), p. 71-72.

다. 그리고 셋째로 학생이 바람직한 학습결과를 습득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자기 자신을 가르치는 과정속에서 솜씨를發揮해야 한다.¹⁰²⁾

② 교회교육 행정

교회교육 행정은 교육조직을 구성 운영하고 교육시설과 자료를 제공 활용케 하며, 교육예산을 투입하여 최대한의 교육성과를 올리도록 도와주는 일체의 활동을 말한다. 즉 현재의 교육 여건속에서 최대의 능률을 나타내도록 이끄는 활동이다.¹⁰³⁾

교회학교의 교회교육 행정이라 하면 교회학교의 조직, 환경개선, 교육경비 지원, 교사에 대한 격려 등을 들 수 있다. 교회학교 조직은 효율성과 인간관계의 조화 가능성을 바탕으로 하여 짜여져야 한다. 현재의 한국 교회 대부분의 조직은 나누기식의 형식으로 짜여져 있으며, 수직적이고 하향적이다. 이것은 교회 조직이 권위주의적 구조라는 사실을 보여 준다. 다시 말하면 한국 거의 모든 교회 조직이 적정규모와 책임분담을 통일성 있게 이루고 있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敎會環境의 시설면에서 교회교육의 場인 교육장소는 교실 등의 부대시설이나 미화작업, 조명도 등에서 미약하다. 특히 교회교육의 豫算에 있어서 교육비가 교회의 총예산의 20% 선을 넘어야 한다고 혹자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각 교회별로 약간씩 차이가 있지만 공통적으로 불매에 실제적으로 敎育費의 예산 역시 아주 미약 할 뿐이다. 교회교육의 예산은 현재의 상태에서 대거 증액되어야 하고, 교사의 위로와 함께 교무관리 등 여러 행정분

102) J.M. Lee, The Flow of Religious Instruction(Dayton, Ohio: Pflaum, 1973), p.211.

103) 임세빈, 「교사교육지침서」, (서울: 한국어린이교육선교회, 1985), p.91.

야에도 투자를 해야 한다.104)

특히 교육행정은 전문화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專門化는 교육부의 운영지침, 계획, 과학적인 연구와 조사 자원과 평가 등을 마련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교사회, 부장회, 전체 교사회, 교사연구회를 활성화하여 교사들의 의견 수렴, 헌신, 연구 등을 도와야 한다. 물론 여기에는 교사와 부장들의 신앙적 獻身이 선행되어야 한다.105)

또 교회교육 행정은 교회의 선교적 사명과 함께 정책을 수립하고 구체적인 교육 프로그램 사이의 통일된 흐름을 위한 다리의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그러므로 교육행정은 독재적인 통제가 되어서는 안되며 항상 교회교육을 위하여 실험적인 시도를 주저하지 말아야 한다. 다시 말해서 교회교육 행정은 교육현장을 섬기는 종의 역할을 담당해야 하겠으며,106) 성직자 중심의 행정 구조에서 과제 수행 중심의 구조로 과감히 바꾸어 나가야 할 것이다.107)

2. 한국 교회교육을 위한 운영 개선 방향

1) 교회교육의 구조

한국 교회의 세속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교회교육의 과제는 막중하다.108) 한국 교회교육의 혼란은 교회의 敎育構造에서부터 문제

104) 손종국, 「전계서」, p. 49.

105) 은준관, 「전계서」, pp. 229-230.

106) 허일룡, 「전계서」, p. 42.

107) 은준관, 「전계서」, p. 229.

108) 정일웅, 교회교육의 근본적 과제, 「교사의 벗」, 92년 7, 8월호, p. 62.

를 삼아야 한다. 교회교육이 전(全)교회라고 지칭하면서도 실제로는 과거 주일학교라고 하는 현재의 교회학교 교육에 제한시켜서 주일날 어린이와 청소년 중심의 프로그램이 교회교육의 전부인 양 狹小한 생각을 해 왔다.

그러나 이제 성숙한 교회형성을 위한 한국 교회교육의 과제는 지금까지 교회학교 중심의 극히 제한된 교회교육에서 탈피해서 교회 회중들로 하여금 배우고 증거하는 교회 共同體로의 자각속에서 그들의 교회를 평가한다. 또 교회 전체가 삶 속에서 다양한 교육의 기회를 계획하고 참여하도록 도움으로써 진정으로 회중들에게 교육 공동체로서의 교회의 삶과 使命을 소개할 수 있어야 한다.¹⁰⁹⁾

교회 교육은 형식이 아니며 내용을 지닌 사랑의 교육이요, 생명의 교육이다.¹¹⁰⁾ 교회는 宣敎를 해야 하는 것처럼 교육에도 주력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가 교회교육은 진보할 수 없다. 교육에 대한 책임은 교회 전체 위에 지어진 일이다. 교육은 교회의 本質에 속하는 것이기에 교육의 기능을 소홀히 하는 교회는 교회의 본질에 반드시 갖추어야 할 필수 불가결한 요소를 잃어버렸다고 하겠다.¹¹¹⁾

2) 교회교육 계획

교회교육에 있어서 보다 중대하고 시급한 문제는 교육 사업 전반에 걸친 계획과 교육 사업의 靑寫眞이 없이 교육이 진행되고 있는 점이라고 지적할 수 있다.¹¹²⁾

109) 오인탁 외, 「전계서」, p.149-150.

110) 엄문용, 「교육프로그램의 실제」, (서울:어린이말씀회, 1981), p.232.

111) James Smart, The Teaching Ministry of the Church 1954, p.11.

112) 김득룡, 「전계서」, p.137.

敎育이란 敎育계획에 의해 좌우된다. 그런 면에서 한국 교회가 敎育 정책 수립에 무관심한 것은 敎會敎育 전체를 문제로 만들고 있는 것이다. 한국 교회는 아직도 生命力이 넘치는 진정한 교회敎育의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고, 특별히 실제적이고 의의있는 敎育目的에 관련된 교회敎育의 필요성을 깨닫지 못하고 있으며, 敎育의 목적을 충분히 이해하고 그 目的을 실제적인 방법으로 이행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敎育 계획에 있어서 매우 미약하다.

3) 교단분열에서의 통합

1930년경부터 교회학교로 탈바꿈해 온 조선 주일학교 연합회는 1922년에 서울 종로 聖書 公會에서 조직되었다. 본래 교회연합이라는 새로운 풍토 조성파 주일학교 즉 교회학교 황금기를 증언하는 기구였지만, 1982년경부터 교단별로 분열되기 시작하면서 교회학교 운동이 일기 시작되었다. 이같은 주일학교의 교회학교 운동은 교단의 손아래 들어가기 시작했으며, 한 때 순수한 평신도 운동이었던 주일학교는 專門化라는 이름으로 점차 교단의 소유물로 변질되기 시작하였다.¹¹³⁾

교회학교의 주일학교는 점차 신앙 敎育운동체로부터 교단의 관계 敎育으로 서서히 탈바꿈하기 시작하여 선교 1세기동안 교회敎育에 많은 敎育적 공헌을 남겼지만 많은 문제점도 노출되었다. 그 예로서 영국에서 경험하였던 교회와 주일학교 사이의 갈등, 반대 그리고 박해와 같은 것들이다. 교회가 한국인의 영역이었다면 주일학교는 선교사의 독점이거나 선교사와 친분

113) 은준관, 선교2세기를 향한 한국교회敎育의 과제, 「기독교사상」, 제29권, 제7호 85년 7월호, pp. 18-19.

이 있는 지도자들의 일터로서 기능을 하였던 것이다.¹¹⁴⁾

한국 교회는 주일학교를 교단안으로 끌어들여 통제하고 교회학교를 구성했으나 성서에서 처음 교회가 구현했던 교회학교와 생활의 표상으로서의 교육이 아닌 예배에만 치중하여 교회의 한 부속기관으로 분리시켜 왔으니 교회교육의 제역할을 하지 못하고, 교회의 한 기구로서만 분리되어 교회안에서 형식적으로 존재하게 됨으로 분열은 심화되어 갔다.

4) 교육

교회교육은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의 발견과 뜨거운 신앙적 경험을 가지도록 지식위에 복음을 놓고 곱게 조화시키는데에 힘을 쏟아야 한다. 즉 福音이 생활화 되도록 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교육은 원래 개인으로서 최대한의 성장을 추구하는 동시에 전체로서의 인간적 발달을 도모하여 적응과 창조를 길로 찾으며 교육은 인생 현장의 문제들을 분석하고 해결하는 입장에서 인간발달을 지향하는 초석이다. 다시 말하면 교육이란 미분화 상태에서 분화상태로 발전하는 동시에 급변하는 생활 주변의 복잡한 사태에도 이를 능히 해결할 수 있고 더욱 발명·창조·탐험할 수 있는 유능한 인간상의 형성을 모색하는 계획화된 변화를 뜻한다.

교회교육에서 가르치는 지식은 바로 복음이다. 이 복음은 인지로만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생활화에 뜻이 있다. 일반적인 지식을 가져야 신앙적인 성장이 가속될 수 있다는 사실도 기억해 두어야 한다.

바로 여기에서 문제 중심의 교육이 나오는데 분리와 배타적인 사고에서 개방과 응용으로 바뀌어지며 지도자 중심의 교육에서 학생중심의 교육으로

114) 「상계서」, p.19.

바꾸어져야 하고 교육이 교회성장의 모체가 되어야 한다.

이와같이 교회교육은 주어진 교육내용을 지식의 전달자처럼 공급하는 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닌 그 교육내용이 내면적 생활화가 되도록 이끄는 데에 의미가 있다.¹¹⁵⁾

5) 사회교육과 평생교육

사회교육은 일반적으로 평생동안 이루어지는 인간교육의 일환으로 가정과 정규학교 외에 이루어지는 사회화 과정을 총망라해서 일컫는 말이라 할 것이다.¹¹⁶⁾

사회교육이라는 용어는 넓은 의미의 포괄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각 나라마다 특유한 사회적 문화적인 상황과 특성, 그리고 문제를 지양해 나가는 특수한 측면에 따라 개념 규정이 달라질 수 있다.

이를 테면 전 교육 현상을 포괄적이면서 통합적이고 총체적인 平生教育의 관점에서 社會教育의 정의를 생각할 수 있다. 여기서 교육의 개념은 어느 한 연령층이나 시간 개념 안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전 人間化 과정속에서 이루어지는 平生을 통한 교육을 말한다.

사회교육의 본질적 특성은 참가자의 자발적인 참가 의식속에서 학습에 대한 의욕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이며 일반적인 성격은 전문적.기술적. 학문이 기보다는 계몽적 성질로서 윤리적이며, 공민적인 교육인 것이다. 사회교육은 시민성, 도덕성, 정신적 가치, 안전교양, 건강, 여가활동, 경제적 효율성,

115) 엄문용. 「전계서」, pp.234-235.

116) Edwin Fenton, Teaching the New Social studies in Secondary Schools(New York:Holt, Rinehart and winston, Inc. 1966), pp.19-80.

직업 재훈련, 생활지도, 가사 및 학습, 방법의 습득 등 개인의 사적 생활과 사회 생활 전반에 걸쳐 언급되고 있다.¹¹⁷⁾

또한 社會教育이 지역사회 활동으로 연결되어 지역사회 주민들로 하여금 현대사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適應能力 및 생활의 합리화를 교육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교육이 교회와 여러 기독교 기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교회에서의 교회교육도 平生教育 차원에서 바로 社會教育과 연결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6) 교사교육

교육에 내실을 기하고자 학생앞에 서는 교사는 살아 있는 모델로서 알찬 수업을 운영하여야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教育資料를 제작하며 교육의 효과를 기하고, 현장교육활동이 시작되기 전에 준비되어지는 과정을 무시하지 말며 교과 연구와 聖經研究를 성실히 하여야 한다. 또한 학생 앞에서 한 약속은 꼭 지켜서 부끄럽지 않은 실력있는 교사가 되어야 할 것이다.

교사는 祈禱와 研究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는 성숙한 신앙으로 향하는 부단한 노력이 병행되어야 하고, 교육 지도자로서 임명받아 봉사하는 교사는 특별한 환경이 작용하지 않는 한 계속하여 봉사하는 소명 의식이 뚜렷한 교사가 되어야 한다.

교회마다 교사의 이동이 너무 심하여 교육 조직에 안정을 기하지 못하고 교육이 충실하지 못한 면이 있으므로 교육 지도자들로서 부르심에 대한 감격과 결단이 있어야 하고, 지속적인 연수와 훈련을 통하여 자질과 품성을

117) 장진호, 「평생교육과 사회교육」, (서울:대운출판사, 1985), p.203.

함양하여 현장 교육에 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118)

여러가지 면에서 개선방향을 살펴보았듯이 현재의 교회교육은 변화를 요구한다. 하지만 교회교육은 하루 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점차로 변화되는 생활속에 되어진다.119)

교회교육은 바로 사랑과 生命의 敎育이다.120) 여기에서 바로 생명 교육이 제기 되는데 한번 받은 감명은 지워지지 아니하고 삶의 역사 속에 계속 작용함으로 곱게 간직하는 아동기에는 특히 이들의 마음밭에 생명나무를 심어 주고 가꿔주고 열매를 맺어 주어야 한다. 이렇듯 감수성이 빠르고 수용력이 강한 아동들을 위해 교회교육은 전체적이고 생산적인 투자가 필요하게 된다.

오늘날의 교육의 장에서 볼 때 교회교육은 교회교육에 대한 행정, 평가, 시설, 기획 등이 탈리 보완되어야 하고, 시행착오나 전승적인 관례에 의한 발전적 구상이 동반되어지지 않는 모든 교회교육 활동은 제도수정을 해야 하며, 공동응답을 위한 교육에 전력투구를 하여야 한다.

이제 교회교육은 새로운 차원인 신학적 터전위에서 교육의 꽃을 피워야 한다. 여기에 일반 교육학과 그 내용이 다른 면이 있는 것이다.

현대의 시점에서 교회교육이 一般敎育보다 뒤떨어져 있다는 것은 인물 부족이요, 아이디어 부족이요, 관심과 노력 부족이다. 따라서 이러한 것들이 시정되어야 교회교육은 자리 매김을 확실히 할 수 있는 것이다. 더불어 하며,121) 사회교육과 평생교육 차원에서 전인교육 속에 구원과 생명을 담는 엄숙한 교훈을 피교육자의 마음 깊은 저변에 심어야 한다. 그래서 그 교육

118) 임문용, 「전계서」, p. 236.

119) 오병세, 「교회, 교육, 신학」, (서울:개혁주의신행협회, 1989), pp. 105-106.

120) 임문용, 「교회의현장교육」, (서울:대한기독교출판사, 1985), p. 68.

121) 오병세, 「전계서」, p. 107.

의 내용이 움직이고 생명력 있게 작용하여야 한다.¹²²⁾

122) 엄문용, 「전계서」, p.253.

V. 要約·結論 및 提言

본 研究의 目的은 韓國 敎會敎育의 變遷과 運營 改善의 摸索에 두었다. 이에 대한 要約·結論 및 提言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요 약

1) 舊約時代의 敎會敎育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셔서 친히 교사가 되어 주시고 하나님 자신과 人間과의 關係에서 注入式으로 가르치셨으며,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가르치시면서 명령하시고 敎育의 責任을 주셨다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리고 新約時代의 敎會敎育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가르치는 교사의 본을 보여 주시고 復活 昇天後 敎育을 명령하심으로 말미암아 제자들이 온 세계로 흩어져 가르치는데 혼신의 힘을 기울였으며, 그 말기에는 敎會敎育中心의 性格을 가지게 된 것으로 밝혀졌다.

2) 敎會敎育의 시대별 변천 과정을 살펴보면 初代敎會 敎會敎育은 예배와 口傳을 통한 입문 敎育 방식으로 실시되었고, 中世期 敎會敎育은 基督敎의 세속화로 敎會敎育이 타락하여 결국 종교개혁기를 맞았다. 종교개혁기의 敎會敎育은 신앙과 문화라는 차원에서 이루어졌다.

近代의 敎會敎育은 평신도로부터 시작되었는데 오늘날 敎會敎育의 큰 밑거름이 되었다.

3) 韓國 敎會敎育은 初代敎會시대 그리스도인들의 순교과정에서 敎會敎

육이 이루어졌다. 日帝時代의 敎會敎育은 교회폐쇄와 함께 침체상태로 있었다. 재건기에는 일제기에 무너졌던 교회와 교회교육이 일어날 기회를 얻게 되었으나 북한 공산주의자들의 불법남침으로 또한번 좌절하게 되었다. 그렇지만 재건기의 교회교육은 그러한 사회적 악조건속에서도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復興期의 교회교육은 어려움과 황금기의 교차기이면서 교회의 부흥과 각 교단의 교회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었고 교회교육을 위한 교재 출판사업과 敎師養成에 힘을 쓴 시기였다. 安定期로 접어들면서는 양적인 면에 치중되어 질적인 교육보다는 교회 양적 확장을 위한 교육에 치중함으로써 교세의 약화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4) 敎會敎育의 運營 改善方向에 있어서는 변화있는 교회교육이 되어야 하고 생산적인 투자가 따라야 한다. 그리고 교회교육에 대한 행정, 평가, 시설, 기획 등이 탈리 보완되어 교회교육에 전력 투구를 하여야 하며, 교회교육 내용은 사회교육과 平生敎育 차원에서 全人的인 교육으로의 運營 改善 방안이 요청되었다.

2. 결 론

본 研究에 대한 結論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敎會敎育은 아동부, 청소년부 등 敎會學校 중심의 제한된 구조를 탈피하여 敎會의 회중들이 삶을 배우고 익히며 이를 실천하는 다양한 敎育 프로그램이 요청된다. 선교 2세기를 맞는 이 때에 敎會敎育의 구체적인 育

寫眞이 필요하다.

둘째, 敎會敎育을 위한 과감한 投資, 敎育環境과 시설 개선, 敎會敎育 行政의 專門性이 제고되어야 한다. 또한 敎育神學의 정립과 敎師의 부족현상을 해결하고 아동부, 중·고등부, 대학·청년부, 장년부, 노년부 등이敎育 중심기능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셋째, 敎會敎育內容과 方法이 단순한 예배 중심적이고 注入式, 강의중심적이어서 敎會敎育에 거는 기대에는 미흡하다. 교인들 삶의 價値觀이나 생활양식으로서 양·질적인 敎會敎育의 시급성이 요청된다.

넷째, 敎會學校 즉 敎會敎育은 敎會에서 하나의 기구로 전락되었고 이는 교단별로 敎會敎育에 대한 분열상이 더욱 심화되어 갔다. 진정한 성도의 양·질의 敎育과 敎會敎育을 위해서도 형식적인 기구로서가 아니라 聖書가 지향하는 敎會敎育이 되어야 할 것이다.

다섯째, 敎會敎育이 社會敎育과 平生敎育의 기능을 다하기 위해서는 전문 교사 양성제가 요청되며, 또 이에 수반되는 교과과정의 개정과 전문적인 資格이 敎育과정 설정 운영이 요청된다.

3. 제 언

첫째, 學校敎育에서 감당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교회敎育에서 감당할 수 있도록 社會敎育과 平生敎育적인 차원에서 敎會敎育이 운영되어야 한다고

본다.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평생교육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으므로 韓國 教會는 教會教育의 폭을 넓히고 비신자에게 이르기까지 教育課程과 내용을 開放해서 社會教育과 平生教育의 기능을 活性化해야 한다.

둘째. 지금까지 教會를 大型化와 양적인 면으로만 추구했던 것을 질적인 향상도 도모하고자 教會교육의 내실화에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능력있는 교사를 발굴·육성하고, 성도들의 잠재적인 은사를 활용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의 개발이 있어야 하겠다.

參考文獻

- 김종열, 「귀족교회」, (서울: 대한기독교교육협회, 1985)
- 김득룡, 「기독교 교육원리」, (서울: 총회교육부, 1986)
- _____, 「기독교 교육원론」, (서울: 총신대학출판부, 1976)
- 김영규, 「基督教 教育學」,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84)
- 김플린, 「한국기독교 교육의 역사」, 대한기독교서회, 1992,
- 고제국, 평신도 주일공과 (1991년도), 기독교대한감리회평신도국, 1990
- 김창영, 기독교교육 성장배경연구, (석사학위논문, 총신대목회대학원, 1991)
- 김태원, 「교회의 교육적 사명」, (서울: 종로서적, 1987)
- 대한기독교교육협회, 「한국 기독교 교육사」, (서울: 대한기독교교육협회, 1973)
- 潘彼得, 「基督教 教育」, (서울: 大韓基督教出版社, 1979)
- 박희성, 「청년회 운영과 실제」, (서울: 성광문화사, 1976)
- 박재간. 임춘식, 노인학교 노인교실의 현황과 대책에 관한 조사 연구, (서울: 한국노인문제연구소, 1983)
- 송덕준, 「기초 기독교 교육학」, (서울: 예수교 대한성결교회 총회교육부, 1986)
- 손병순, 「미래의 청소년상, 2천년대를 향한 기독교 교육의 비전」, (서울: 기독교 교육협회, 1980)
- 손종국, 「청소년 교육」, 청소년교육 선교회, 1990
- 오인택 외 4인, 「기독교 교육」, (서울: 대한 기독교 교육협회, 1984)
- 은준환, 「교육 신학」, (서울: 대한 기독교 서회, 1976)

- _____, 「왜? 기독교 교육을 중심으로 하여」, (서울:성광문화사, 1976)
- _____, 「선교2세기를 향한 한국 교회교육의 과제」, 「기독교사상」, 제29권 제7호 85년 7월호.
- 엄문용, 「교육프로그램의 실제」, (서울:어린이말씀회,1981)
- _____, 「교회의 현장교육」,(서울:대한기독교출판사,1985)
- 유홍렬, 「高宗治下 西學受難의 研究」,(서울:乙酉文化社,1973)
- 임세빈, 「교사교육 지침서」, (서울:한국어린이교육선교회, 1985)
- 오병세, 「교회,교육,신학」, (서울:개혁주의신행협회, 1989)
- 오경석, 해방30년의 기독교교육과 그 방향모색 연구,1981.
- 정용섭, 「기독교 교육개설」, (서울:KCCE, 1976)
- 정용섭, 「현대 기독교 교육의과제와 방법」, (서울:대한기독교서회, 1991)
- 정일용, 교회교육의 근본적 과제,「교사의 벗」,92년7,8월호,
- 장진호, 「평생교육과 사회교육」,(서울:대운출판사,1985)
- 허일룡. 「교회교육 가이드」, (안양:성문출판사, 1989)
- A.Jersild and associates, Child Development and the Curriculum (Tcachers College,Columbia University, 1946.)
- Ben Son, Clarence History of Christian Education (Chicago: Moody Press, 1943)
- Burns.E.M, Western civiligation Vol I, Norton, New york, 1958.
- Campbell,T, J, The Jesuit 1534-1921, London, The Encyclopaedia Britanica Press, 1921.
- Dood.C.H, The Apostolic Preaching and It's Developments (Lon-

- don: Hodder and Stroughton Ltd, 1944)
- Eavey.C.B, Principles of Teaching for Christian Teachers (Grand Rapids:Zondervan Publishing House, 1940)
- Edwin Fenton, Teaching the New Social studies in Secondary Schools (New York:Holt, Rinehart and winston, Inc. 1966)
- Helping Families Through the Church (St.Louis: Concordia publishing House, 1957)
- Lee.J,M,The Flow of Religious Instruction(Dayton, Ohio: Pflaum, 1973)
- James Smart, The Teaching Ministry of the Church, 1954
- Lewis J,Sherrill, The Rise of Christian Education(Newyork: Mcmillan, 1944)
- Miford Sholund, Teaching Junior High Students, NSSA-Link (July, 1960)
- Peter P.Person, An Interoduction to Christian Education (Grandapids: Bakern Book House, 1958)
- The Cradle Roll Department of the Sunday School (Nashville: Sunday School Board of the Southern Baptist Convention, 1941)
- WilliamM, Ramasay, Cvclesand Renewal:Trends inProtestant Lay Education (New york:Abingdon Press, 1969)
- Henry Chadwick, 서영일역, 「초대교회사」, (서울:기독교문서선교회, 1983)
- John H.WesterhoffIII, 정용섭역, 「교회의 신앙교육」, (서울:대한 기독교교육협회, 1983)

J.Edward Hakes 정정숙역, 「기독교 교육학개론」, (서울:성광문화사,
1979)

RalphP. Martin, 오창윤역, 「초대교회 예배」, (서울:도서출판은성,
1990)

Roif E.Muuss, 송주두 역, 「청소년 이론」, (대구:계명대학교 출판부,
1981)

ABSTRACT

A Study on the Concerning the Changes and the Operation Improvements for the Church Education of Korea.

Shin Kwi - Cheol

Department of Educational Administration

Graduate School of Administration

Han Sung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lies in groping for the changes and the operation improvements of the church education of Korea. Our conclusion regarding this matter is as follows.

First, church education requires a variety of educational program which enables church congregation to learn and practice their way of life by breaking from the limited organization centered on the church communities, that is, children and teen-agers. Now is the time we are going to face the two hundred years' anniversary of missionary work in Korea, so we need a concrete blue-print in relation to church education.

Second, a bold investment for church education, an improvement of educational environments and facilities, and a professional characteristics

of the administration of church education must be reconsidered. Besides, we must take a triangular position for the establishment of educational theology, and solve the shortage problem of teachers. Children,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college students, adults and old men must be converted as their main function of education.

Third, the contents and method of church education don't come up to the expectations of church education because they are too much centered on simple worship, cramming style of lecture. The necessity of church education as a sense of value and a way of life of christians is urgently needed qualitatively and quantitatively.

Fourth, church school, that is, church education has fallen down into a simple organization from the church, which is making disintegration a spect of a religious body concerning church education worse day by day.

In order to have a good quality education of a true christian and church education, we must pursue a true church education headed for by the Bible not as a formal organization.

Fifth, the training system for professional teachers is required so that church education may have its complete function of educational education and life-long education, and the subsequent revision of educational curriculum and the establishment and management of an educational curriculum with a professional qualification are also required.